

‘있다’의 의미 특성과 품사, 그리고 활용*

황 화 상

<차 례>

1. 머리말
2. 본용언 ‘있다’의 의미와 품사, 그리고 활용
3. 보조용언 ‘있다’의 의미 기능과 품사, 그리고 활용
4. 맺음말

1. 머리말

용언은 의미 특성, 활용의 양상 등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로 나뉜다. 그런데 용언 가운데에는 의미 특성 측면에서, 혹은 활용의 양상 측면에서 동사와 형용사 가운데 어느 하나의 품사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이들 단어에 대한 문법적 처리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이를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로 본다. 이를테면 (1ㄱ)과 같이 ‘크다’를 ‘크기가 보통 정도를 넘다’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형용사로, ‘자라다’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동사로 본다(『표준국어대사전』). 둘째, 이를 동사와 형용사 가운데 어느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되 의미 특성 혹은 활용의 양상 측

* 이 연구는 2012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1210009).

면에서 다른 품사의 속성도 함께 갖는 것으로 본다. 이를테면 (1ㄴ)과 같이 ‘맞다’를 동사로 보되 형용사적 특성도 함께 갖는 것으로 본다(도원영 2002 : 59).¹⁾

- (1) ㄱ. 그 아이는 키가 크다.
 그 아이는 (지금도) 키가 크다.
 ㄴ. 옷이 아이의 몸에 꼭 {맞는다, 맞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함께 쓰이는 ‘있다’도 동사나 형용사 가운데 어느 하나로 보기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있다’는 ‘크다, 맞다’ 등의 부류와는 그 속성이 얼마간 다르다. 곧 ‘있다’는 (2ㄱ)과 같이 동사처럼 활용하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활용하기도 하지만, ‘크다’와는 달리 의미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²⁾ 또한 ‘있다’는 (2ㄴ)과 같이 동사처럼 활용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는 점에서 ‘맞다’와도 다르다.

- (2) ㄱ. 집에 {있다, 있어라}.
 앉아 {있다, 있어라}.
 먹고 {있다, 있어라}.
 ㄴ. 그는 지금 집에 {있다, [?]있는다}.
 그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있는다}.
 그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있는다}.

‘있다’를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닌 제3의 품사(존재사)로 설정하기도 하는 것(이완웅 1929, 박승빈 1931, 1935 등)은 이와 같이 ‘있다’는 어떤 동사 부

1) 도원영(2002)에서는 ‘맞다’와 같이 동사처럼 활용하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활용하기도 하는 단어들을 ‘형용성 동사’라고 불렀다. 형용성 동사는 ‘의미적으로 상태성을 가지면서 형태 활용이나 통사적 기능에서 형용사적 특성, 형용성을 띠는 동사류’(도원영 2002 : 47)를 말한다.

2) 이는 특히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있다’의 경우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살펴본다.

류나 형용사 부류와도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다’를 존재사로 보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있다’의 특이성을 반영한 것일 뿐 그 특이성을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있다’의 품사를 어떻게 설정함으로써 그것의 활용에서 드러나는 특이성을 문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있다’의 의미 특성에 대한 제검토이다. 활용의 특성은 품사의 설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품사의 설정은 의미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있다’의 의미 특성은 본용언으로 쓰일 때와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유형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각각 2장과 3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본용언 ‘있다’의 의미와 품사, 그리고 활용

본용언 ‘있다’의 품사 설정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이를 어느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단어로 보는 연구,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로 보는 연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연구는 다시 동사로 보는 연구, 형용사로 보는 연구, 존재사로 보는 연구로 나뉜다.

(3) 본용언 ‘있다’의 품사 설정

ㄱ. 어느 하나의 품사로 설정한 연구

① 동사

『우리말큰사전』, 『금성관 국어대사전』, 주시경(1910), 정인승(1959, 1968) 등

② 형용사

『연세한국어사전』,³⁾ 최현배(1937/1961), 이승녕(1956 ㄱ, ㄴ), 유현

경(2006) 등

③ 존재사

이완웅(1929), 박승빈(1931, 1935), 심의린(1935), 김근수(1947), 이
희승(1950, 1956), 성광수(1976), 서정수(1994/1996) 등

ㄴ.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로 본 연구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최호철(1993), 신선경
(1997/2002), 이상억(1970/1999), 김정남(1998/2005), 배주채(2000), 황
화상(2011/2013) 등

선행 연구 가운데에서 ‘있다’의 특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이를 존재사로 보는 연구들이다. ‘있다’를 ‘없다, 계시다’와 함께 존재사로 설정한 이완웅(1929 : 106 註)에서는 존재사 설정의 이유를 (4)와 같이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존재사는 ‘있다’의 활용 양상이 일부 동사와 같기도 하고 일부 형용사와 같기도 하여⁴⁾ 동사나 형용사 가운데 어느 하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이는 ‘있다’의 활용의 특이성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특이성을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 (4) 國語文法에서는 [有]는 動詞, [無]는 形容詞로 되었으나, 朝鮮語에서는 二者가 共に 性質及活用이 全然 同一하며 그 活用하는 形이 一部分은 形容詞와 如하고, 一部分은 動詞와 如한 故로, 動詞나 形容詞에 屬치 아니하고 一種 獨立한 品詞로 된 것이며, ㅁ [계시다]도 普通 形容詞와 갓흐나 此亦 形容詞와는 多少 相異한 點이 有한 故로 其語의 性質及 活用하는 形狀에 依하여 存在詞에 屬케 되니라. (띄어쓰기는 필자에 의함)

3) 다만 ‘동사적’으로 쓰여서 ‘머무르다, 지내다’, ‘시간이 경과하다’의 뜻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로 ‘밝다, 크다’ 등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했다.

4) 이는 박승빈(1931, 1935)에서처럼 ‘활용이 동사와 다르기도 하고 형용사와 다르기도 하다’라고 하여 다른 점에 초점을 두어 표현할 수도 있다.

‘있다’를 동사나 형용사 가운데 어느 하나로 보는 연구는 ‘있다’의 의미 특성은 어느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의미 특성은 차치하더라도 활용형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곧 ‘있다’를 동사로 볼 때에는 ‘있다, 있구나’와 같이 활용하는 예외를, 형용사로 볼 때에는 ‘있어라, 있자’와 같이 활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있다’를 형용사로 본 최현배(1937/1961 : 185-187)을 주목할 수 있다. 최현배(1937/1967)에서는 활용의 측면에서 동사의 특성을 갖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서술형(베품꼴)의 활용(동사 ‘-는다’, 형용사 ‘-다’)을 표지(표점)로 삼아 ‘있다’를 형용사로 보았다. ‘있거라, 있자’와 같은 활용은 예외적인 것으로 본 셈이다.

- (5) “있다”와 “없다”가 움직씨와 그림씨의, 어느 쪽에 붙을 것인가? 이는 참 우리말에서의 한 물음거리이다. … “있다”와 “없다”가 그 베품꼴(敍述形)에서는 이적 나아감(現在進行)의 때매김이 없고,⁵⁾ 매김꼴(連體形)에서는 이적 나아감의 때매김이 있나니. … 그러므로, “있다”와 “없다”는 움직씨와 그림씨와의 중간에 있는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러하지마는, 베품꼴이 매김꼴보다 더 기초적 의의를 가진 것이니까, 그 베품꼴의 때매김에 따라서, “있다”와 “없다”를 그림씨로 잡음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있다”는 “없다”와도 달라서, 시킴꼴(命令形)과 꺾임꼴(請誘形)을 갖춰 가지고 있으니.⁶⁾ … 이런 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있다”만은 움직씨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마는, 그리해서, 베품꼴 “있다”를 설명할 수 없는 동시에 베품꼴의 중요성 곧 움직씨와 그림씨와의 갈라보는 표점됨을 무시할 수도 없으므로, 아직은 편의적으로 위예와 같은 뜻과 방법에서 “있다”와 “없다”를 다 같이 그림씨로 잡았노라. (일부 괄호 안의 한자, 밑줄, 그리고 각 주는 필자에 의한 것임)

‘있다’를 동사로 본 연구 가운데에서는 정인승(1959)를 주목할 수 있다.

5) ‘돈이 있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었다.

6) 각각 ‘복동아, 여기 있거라’, ‘복동아, 여기 있자.’의 예를 들었다.

정인승(1959)에서는 ‘있다’가 ‘있는다’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변칙활용일 뿐이며, 또 의미적으로도 ‘있다’는 움직임(그치는 움직임을 계속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주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를 동사로 보았다.

- (6) … “있다”라는 말은 “있는다”로 되지 않는 점 외에는 모든 변화가 다른 움직씨들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으니 이것은 움직씨로서 다만 “벗어난 끝바꿈”(변칙활용) 하는 것으로 다루면 그만일 것(왜냐하면, 이보다 더 심한 벗어난 움직씨가 많다.)이요, “없”라는 말은 “없을”으로 돼야 할 경우에 “없는”으로 되는 점과, … 더구나, 내용상으로 따진대도 … “있다”는 어떤 경우는 순전한 상태만을 나타내기도 하지 마는, 어떤 경우는 움직임을 나타냄이 더 주되는 내용이 된다. 곧 그치는 움직임을 계속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정인승 1959 : 38)

활용의 특이성에 따른, ‘있다’의 품사 설정에 대한 고민은 남기심·고영근(1985/1993)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기심·고영근(1985/1993)에서는 어느 활용형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있다’를 형용사(종결평서형 기준)로 볼 수도 있고 동사(명령형과 청유형 기준)로 볼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있다’의 품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7) 이곳에서는 종결평서형에 근거하여 두 단어를 형용사로 간주하는 편에 서지만 실제로 ‘있다’는 동사에 가깝다. …⁷⁾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있다’는 동사에 넣을 수 있고 ‘없다’는 형용사로 간주할 수 있다. ‘있다’는 몇 군데의 불규칙한 곳은 있으나, 활용형 전반을 채우고 있다.

이와 같이 ‘있다’를 어느 하나의 품사로 보는 연구는 의미(상태 혹은 움직임)와 활용(평서형, 혹은 명령형과 청유형) 측면에서 드러나는, ‘있다’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것을 주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동사로 보는 연구

7) ‘여기에 있어라, 같이 있자’(cf. 가거라, 먹어라, 가자, 먹자), ‘여기에 없어라, *같이 없자’(cf. *어서 예빠라, *어서 붙어라, *같이 예쁘자, *같이 붙자)’의 예를 들었다.

와 형용사로 보는 연구가 나뉜다. 두 견해의 차이는 특히 평서형에서 ‘있다’의 활용(‘있다, *있는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곧 ‘있다’를 형용사로 본 최현배(1937/1961)에서는 이를 주요 근거로 삼았고, ‘있다’를 동사로 본 정인승(1959)에서는 이를 변칙활용의 하나로 이해했다. 그런데 (8)에서 알 수 있듯이 평서형에서도 ‘있다’가 늘 ‘있다’로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 (8) ㄱ. 나는 오늘 집에 **있다**. (성광수 1976 : 112 주8)
 나. 아이들이 오늘은 집에**만** **있다**. (신선경 1997/2002 : 32)
 다. 그는 집에 **있**는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있다’를 그 쓰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용사로 보기는 어렵다. 분명한 결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남기심·고영근(1985/1993)에서도 ‘있다’를 동사로 볼 수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평서형에서 ‘있는다’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 (9) 그리고 평서형에서 최근 들어 ‘있다’가 ‘있는다’가 되는 경향이 강하여 동사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져 가고 있다. 이런 일은 ‘나 오늘 집에 있는다’와 같이 구어체에서 더 두드러지지만 문장체에서도 목격된다.⁸⁾ (남기심·고영근 1985/1993 : 133)

그러면 ‘있다’를 일률적으로 동사로 볼 수 있을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모든 경우에 ‘있다’가 ‘있는다’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기심·고영근(1985/1993)에서는 최근 들어 ‘있다’가 ‘있는다’로 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지만, 이는 ‘있다’가 ‘있는다’로 되는 것이 아니다. (10)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래부터 ‘있다’로 활용하는 때와 ‘있는다’로 활용하는 때

8) 남기심·고영근(1985/1993 : 133)에서는 그 예로 박지홍(1981 : 110)에서 제시한 ‘... 퇴근 시간은 밤 10시 반, 이 때쯤 되면 최씨는 남편의 저녁을 차려 놓고 집 앞에 나가 있다. 세 살짜리 아들은 혼자 자고 있다.(1981. 5. 2. 코리안의 맥박)’를 인용했다.

가 구별되는 것일 뿐이다. (11)에서도 ‘있다’의 자리에는 본래부터 ‘있다’가 쓰이기 어렵다.⁹⁾

- (10) 가. 철수는 지금 학교에 {있다, *있는다}
 나. 나는 내일 집에 {*있다, 있다}.
 (11) 가.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이 아플 때까지 이런 상태로 있다.
 나. 이까짓 하청공장 있으래도 안 있어, 더러워서도 안 있다.
 다. 15.3%는 ‘창피하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답했으나 ...
 라. ‘라스’ 김구라 “나는 술자리에 1시간만 있다”

그러면 ‘있다’를 본래부터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용언으로 볼 수 있을까? 문제의 핵심은,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 특성이 다른 만큼, ‘있다’의 의미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왜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 아울러 서술형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활용형에서도 그 차이가 형식적으로 드러나는지를 검토하는 일도 필요하다. 먼저 (12)와 같이 보통 ‘있다’로 활용하는 예에서 ‘있다’의 의미를 살펴보자.

- (12) 그는 집에 있다.

(12)는 ‘그가 집에 있음’, 혹은 ‘그가 집에 있는 상태임’이라는 뜻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이때 ‘있다’는 ‘존재(有) 상태’(이하 ‘존재(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는 형용사 ‘없다’가 ‘부재(無)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대등하다. 따라서 (12)에서 ‘있다’는 무엇보다도 그 의미로 볼 때 형용사로서 쓰인 것이며, ‘있다’로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런데 ‘있다’가 갖는 상태성은 ‘예쁘다, 곱다, 크다’ 등 보통의 형용사가 갖는 상태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보통의 형용사가 드러내는 상태성과

9) (11)은 각각 경향신문(1968.3.25, ‘날씬해지는 미용 제조’), 동아일보(1979.9.7., 소설 ‘달이 뜨면 가리라’), 한겨레신문(1992.12.24., ‘만원 지하철 문 열릴 때 가장 불안’), 스타뉴스(2013.6.13, 기사 제목)에서 취한 예문이다.

달리 존재는 주체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져서 지속되는(혹은 유지되는) 상태이며, 또 주체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지속할 수도 있고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이다.¹⁰⁾ 존재를 일종의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¹¹⁾ ‘있다’가 드러내는, ‘행위로서의 존재’(이하 ‘존재(행위)’)의 뜻은 (13)과 같은 두 문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13) ㄱ. 우리는 나갔다 올 테니 너는 집에 있어라.
 ㄴ. 우리는 집에 있을 테니 너는 나갔다 오너라.

(13)의 두 문장에서 ‘있다’는 ‘나가다’와 대비된다. 이때 ‘나가는’ 것이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위이듯이 ‘(나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13)에서 ‘있다’는 동사로 쓰여서 ‘존재(행위)’의 뜻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3ㄱ)에서와 같이 ‘있어라’로 활용하고, (13ㄴ)과 같은 (의지를 표현하는) 문맥에 쓰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이와 같이 ‘있다’는 형용사로서 ‘존재(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며, 동사로서 ‘존재(행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에는 품사가 다른 만큼 평서형, 감탄형, 간접인용문에서의 활용, ‘있다’를 후행할 때 보조용언 ‘않다, 하다’의 활

10) 이와 달리 이를테면 ‘예쁘거나 곱거나 큰’ 상태는 주체의 의지에 의해서 생기지도 않으며, 또 주체의 의지에 따라 지속하거나 지속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11) 신선경(1997/2002 : 55)에서도 “‘있다’는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exist) 상태(state)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과정성(process)을 갖는 ‘머무름’의 의미도 나타낸다. … 이와 같이 ‘있다’가 ‘사건적 존재’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그것은 한 대상의 존재 여부나 존재하는 상태 자체에 관한 진술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여 그 과정을 문제삼는다는 면에서 ‘있다’의 다른 의미들과 구별된다.”고 하여 존재를 일종의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로 신선경(1997/2002)에서는 ‘있다’ 구문을 존재(존재론적 존재, 유형론적 존재, 사건적 존재, 처소적 존재) 구문과 소유(양도성 소유, 비양도성 소유) 구문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사건적 존재 구문의 ‘있다’만 동사로, 나머지 구문의 ‘있다’는 모두 형용사로 보았다. 이 밖에 ‘있다’의 의미, 유형, 특성 등에 대해서는 박양규(1975), 양정석(1995), 유현경(1996), 고석주(199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용,¹²⁾ ‘못’ 부정문의 성립 가능성 등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14) 형용사 ‘있다’의 활용

- ㄱ. 그가 지금 집에 있다.
- 너는 지금 집에 있구나.
- 그는 지금 집에 있다고 한다.
- ㄴ. 그는 지금 집에 있지 않다.
- 그도 지금 집에 있기는 하다.
- ㄷ. *그는 지금 집에 못 있다.
- *그는 지금 집에 있지 못하다.

(15) 동사 ‘있다’의 활용

- ㄱ. 그는 혼자서도 집에 잘 있는다.
- 너는 혼자서도 집에 잘 있는구나.
- 그는 혼자서도 집에 잘 있는다고 한다.
- ㄴ. 그는 혼자서는 집에 잘 있지 않는다.
- 그는 혼자서도 집에 잘 있기는 한다.
- ㄷ. 나는 혼자서는 집에 못 있는다.
- 나는 혼자서는 집에 있지 못한다.

그리고 형용사 ‘있다’와 달리 동사 ‘있다’에는 (16)과 같이 ‘-겠-, -을게, -을래, -으마, -으려고’ 등 동사에 결합하는 어미들을 결합하여 의지, 약속, 의도 등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¹³⁾ ‘-어라, -자’와 같은 어미를 결합하여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도 있다.

- (16) ㄱ. 나는 집에 {있겠다, 있을게, 있을래, 있으마, 있으려고 한다}.
- ㄴ. 집에 {있어라, 있자}.

12) 잘 알려져 있듯이 보조용언 ‘않다, 하다’는 본용언이 형용사일 때에는 ‘않다, 하다’로 활용하며(‘예쁘지 않다, 예쁘기는 하다’), 동사일 때에는 ‘않는다, 한다’로 활용한다(‘먹지 않는다, 먹기는 한다’). 이는 부정의 ‘못하다’도 마찬가지이다.

13) 다만 ‘-겠-’은 ‘그는 지금 집에 있겠다’처럼 형용사로서의 ‘있다’에도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추측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사에 결합하는 것과는 다르다.

한편 ‘있다’는 ‘어떤 직장에 다니다’의 뜻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직장에 ‘다니는’ 것은 주체가 그 직장에 존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는 주체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져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에도 ‘있다’가 드러내는 어떤 뜻(곧 ‘존재(상태)’, 혹은 ‘존재(행위)’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17)과 같이 이를 동사와 형용사로 구별하여 쓸 수 있다.

- (17) ㄱ. 그는 아직 그 회사에 있다.
 너는 그냥 그 회사에 있어라.
 ㄴ. 그는 아직 그 회사에 있다고 한다.
 그는 그냥 그 회사에 있는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있다’는 많은 경우에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정한 의미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있다’가 동사로만 쓰이거나 형용사로만 쓰이는 때도 있다.

- (18) ㄱ.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ㄴ. 책이 책상 위에 {있다, *있는다}.
 신(神)이 있다.
 아직 나에게서는 기회가 있다.
 오늘 회식이 있다.
 그는 고집이 있다.

(18ㄱ)에서처럼 ‘있다’는 ‘시간이 경과하다’의 뜻을 갖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동사로만 쓰인다. 이때의 ‘있다’가 동사로만 쓰이는 것은 시간의 경과 는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내는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8 ㄴ)에서 ‘있다’가 형용사로만 쓰이는 것은 각 문장의 주어와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있다’의 동사로서의 쓰임은 존재 상태가 주체의 의지에 의해 생겨서, 또 주체의 의지에 따라 지속하거나 지속하지 않을 수 있는 상

황이 전제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를테면 (18ㄴ)의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주체가 될 수 없는 ‘책’이다. 따라서 (18ㄴ)과 같은 문맥에서는 ‘있다’가 동사로서의 쓰임을 가질 수 없다.¹⁴⁾

3. 보조용언 ‘있다’의 의미 기능과 품사, 그리고 활용

보조용언¹⁵⁾ ‘있다’의 품사 설정에 대한 연구도 크게 이를 어느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단어로 보는 연구,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로 보는 연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품사로 보는 연구는 다시 보조동사로 보는 연구, 보조형용사로 보는 연구, 존재사로 보는 연구로 나뉜다.¹⁶⁾

(19) 보조용언 ‘있다’의 품사 설정

ㄱ. 어느 하나의 품사로 설정한 연구

① 보조동사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큰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14) 참고로 ‘없다’가 ‘없다’로는 활용하지만 ‘없는다’로는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상태’, 곧 ‘부재’는 논리적으로 주체가 의지에 따라 만들거나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집에 없는 상태’는 이를테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행위에 의해 생겨서 그 행위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혹은 ‘다시 들어오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주체가 의지에 따라 만들고 지속하는 것은 ‘나가 있는 상태’이며, ‘없는 상태’는 그 결과로서 만들어져서 지속되는 것일 뿐이다.

15) 선행 연구에서 보조용언은 ‘조동사, 보조동사, 의존용언, 의존동사, 메인풀이씨, 도움풀이씨’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용어에 관계없이 편의상 이를 보조용언(보조동사, 보조형용사)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16) 이 밖에 보조용언 ‘있다’에 대한 연구 가운데에는 분명하게 그 품사를 구별하지 않고 ‘보조용언’으로 통칭한 연구들(손세모들 1994/1996, 이선웅 1995, 임병민 2010 등)도 있다. 의미 기능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 세부적인 품사를 어떻게 보느냐를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도 의미 기능과 품사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는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인승(1968), 허웅(1995/2000),¹⁷⁾ 민현식(1999), 이익섭(2005),
김승곤(2009), 황화상(2011/2013) 등

② 보조형용사

최현배(1937/1961), 이승녕(1968),¹⁸⁾ 이인모(1968) 등

③ 존재사

성광수(1976), 서정수(1994/1996) 등

- ㄴ. 동사(‘-고 있다’)와 형용사(‘-어 있다’)를 겸하는 단어로 본 연구
『금성관 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남기심·고영근(1985/
1993), 김석득(1992), 배주채(2000), 이주행(2000/2001) 등

보조용언 ‘있다’의 품사 설정에서 제기되는, 본용언 ‘있다’와는 또 다른 문제는 활용 양상의 차이가 의미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품사는 의미 특성에 따라 구별되며, 활용의 양상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보조용언 ‘있다’는 의미 기능으로는 대체로 ‘-어 있다’의 형태로 쓰일 때(‘상태’, 혹은 ‘상태의 지속’)와 ‘-고 있다’의 형태로 쓰일 때(‘진행’)가 다르며,¹⁹⁾ 또 이에 따라 각각 형용사와 동사로 구별되지만, 활용의 양상은 의미 기능이나 품사와는 특별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²⁰⁾ 이러한 점은 본용언 ‘있다’와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20) 본용언 ‘있다’의 품사 구별

ㄱ. (형용사) 집에 있다.

ㄴ. (동사) 집에 있어라.

17) 허웅(1995/2000)에서는 ‘계시다’는 보조형용사로 보았다.

18) 이승녕(1968 : 125-126)에는 ‘-어 있다’의 예만 제시되어 있다.

19) 본용언 ‘있다’를 동사로 본 『금성관 국어대사전』, 형용사로 본 『연세한국어사전』, 동사와 형용사 가운데 어느 하나로 보되 그 결정을 유보한 남기심·고영근(1985/1993) 등에서 보조용언 ‘있다’에 대해서는 동사(‘-고 있다’)와 형용사(‘-어 있다’)를 구분한 것은 바로 그 의미 기능이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 본 연구에서는 보조용언 ‘있다’도 어느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에는 그 의미 특성과 활용의 양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본용언 ‘있다’와 다름이 없으므로 다시 살펴보지 않는다.

(21) 보조용언 ‘있다’의 품사 구별

ㄱ. (형용사) 의자에 앉아 {있다, 있어라}.

ㄴ. (동사) 밥을 먹고 {있다, 있어라}.

(21)은 보조용언 ‘있다’의 품사를 선행 연구에서처럼 단순히 ‘-어 있다’(이하 ‘있다1’)는 형용사로, ‘-고 있다’(이하 ‘있다2’)는 동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이는 ‘있다’의 의미 기능을 단순히 ‘있다1’은 상태(혹은 상태의 지속, 완료)를, ‘있다2’는 진행(혹은 과정의 계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있다1’과 ‘있다2’로 나누어 보조용언 ‘있다’의 의미 기능과 품사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한다.²¹⁾

먼저 ‘있다1’을 살펴보자. ‘있다1’은 본용언 ‘있다’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상태를 나타낸다. 본용언 ‘있다’와 다른 점은 ‘있다1’이 나타내는 상태는 선행하는 본용언이 나타내는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져서 지속되는 상태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22ㄱ)은 ‘의자에 앉는’ (과거의)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져서 (발화시까지) 지속되는 ‘그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를, (22ㄴ)은 ‘방에 누는’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져서 지속되는 ‘그가 방에 누워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 따라서 이때의 ‘있다1’은 ‘(본용언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이하 ‘행위의 결과 상태의 지속(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22) ㄱ.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

ㄴ. 그는 방에 누워 있다.

21) 배주채(2000)은 활용의 차이를 근거로 ‘있다1’과 ‘있다2’ 각각에 대해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것으로 본 유일한 연구(이후 양정석(2012)에서도 이를 받아들임)이다. 그러나 배주채(2000)에서는 활용의 차이는 제시했지만 동사와 형용사로 쓰일 때 각각 어떤 구체적인 의미 기능을 가지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것이 활용의 양상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했다. ‘사전 기술’을 표방했지만 미시구조에 뜻풀이 없이 예문만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는 바로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22)에서 ‘있다1’이 표현하는 행위의 결과 상태 또한 주체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지속할 수도 있고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있다1’이 (23)에서와 같이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이때 ‘있다1’은 ‘행위의 결과 상태를 지속하는 행위’(이하 ‘행위의 결과 상태의 지속(행위)’의 뜻을 나타낸다.

- (23) ㄱ. 너는 의자에 앉아 있어라.
 ㄴ. 너는 방에 누워 있어라.

이와 같이 ‘있다1’은 형용사로 쓰여서 ‘행위의 결과 상태의 지속(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며, 동사로 쓰여서 ‘행위의 결과 상태의 지속(행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에는 품사가 다른 만큼 평서형, 감탄형, 간접인용문에서의 활용, ‘있다’를 후행할 때 보조용언 ‘않다, 하다’의 활용, ‘못’ 부정문의 성립 가능성²²⁾ 등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24) 형용사 ‘있다1’의 활용

- ㄱ. 그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너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구나.
 그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한다.
 ㄴ. 그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 않다.
 그도 지금 의자에 앉아 있기는 하다.
 ㄷ. 그는 아직 의자에 못 앉아 있다.
 *그는 아직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하다.

(25) 동사 ‘있다1’의 활용

- ㄱ. 그는 혼자서도 의자에 잘 앉아 있다.
 너는 혼자서도 의자에 잘 앉아 있구나.

22) (24ㄷ)과 같이 짧은 부정문에서는 ‘있다1’이 형용사로 쓰일 때에도 ‘못’ 부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는 ‘못’이 ‘앉아 있다’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않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문장은 ‘[못 앉아서 생긴 결과 상태]가 지속됨’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24ㄷ)은 ‘외부의 원인’에 의한 부정을 뜻한다는 점에서 ‘능력’에 의한 부정을 뜻하는 (25ㄷ)과는 다르다.

- 그는 혼자서도 의자에 잘 앉아 있다고 한다.
 나. 그는 혼자서는 의자에 잘 앉아 있지 않는다.
 그는 혼자서도 의자에 잘 앉아 있기는 한다.
 디. 나는 혼자서는 의자에 못 앉아 있다.
 나는 혼자서는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한다.

그리고 동사로서의 ‘있다1’에는 (26)과 같이 ‘-겠-, -을게, -을래, -으마, -으려고’ 등 동사에 결합하는 어미들을 결합하여 의지, 약속, 의도 등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 ‘-어라, -자’ 등의 어미를 결합하여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도 있다.

- (26) 가. 의자에 앉아 {있겠다, 있을게, 있을래, 있으마, 있으려고 한다}.
 나. 의자에 앉아 {있어라, 있자}.

그런데 ‘있다1’은 (27)과 같은 문맥에서도 쓰일 수 있다. (27)은 주체가 될 수 없는 주어가 쓰인 문장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예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있다1’이 ‘행위의 결과 상태의 지속’과 관련된 의미 기능을 갖는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예들과 다름이 없다. 이를테면 (27가)은 ‘누군가 책을 책상 위에 놓는’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져서 지속되는 ‘책이 책상 위에 놓인’ 상태를 나타낸다. 다만 이때에는 행위의 주체가 문장에서 드러나지 않으므로 ‘있다1’이 동사로서의 용법을 가질 수는 없다.

- (27) 가.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나. 글씨가 쓰여 있다.

다음으로 ‘있다2’를 살펴보자. ‘있다2’는 ‘진행(혹은 행위의 지속)’의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이렇게 보면 그 의미 특성은 본질적으로 동작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보조용언 ‘있다’가 동사와 형용사를

23) 이는 ‘(-고) 있다’를 보조형용사로 본 최현배(1937/1961)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겸한다고 본 선행 연구에서 ‘있다2’를 동사로 본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리고 (28)에서 알 수 있듯이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든 동사처럼 활용을 하든 관계없이 ‘있다2’가 쓰인 문장은 논리적으로 진행의 상적 의미를 갖는다.

- (28) ㄱ.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ㄴ. 책을 읽고 있어라.

그러면 (28)에서 똑같이 진행의 상적 의미를 갖는 두 문장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행은 본질적으로 동작성을 띤다. 그러나 동시에 진행은 일종의 ‘상태’로도 인식할 수 있다. 모든 행위는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료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우리는 어떤 행위에 대해 이를테면 진행 중인 상태인지, 완료된 상태인지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있다2’ 구문을 (29)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2’가 ‘상태 진술’의 기능을 갖는다고 본 임홍빈(1975/1998 : 614-615)을 주목할 수 있다.²⁴⁾

- (29) ㄱ. 차를 타고 있다. (=차를 타는 상태에 있다.)
 ㄴ. 밥을 먹고 있다. (=밥을 먹는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있다2’는 기본적으로는 ‘행위로서의 진행’(이하 ‘진행(행위)’)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상태로서의 진행’(이하 ‘진행(상태)’)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로서의 용법도 갖는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있다2’는 의미 기능과 품사가 다른 만큼 평서형, 감탄형, 간접인용문에서의 활용, ‘있다’를 후행할 때 보조용언 ‘않다, 하다’의 활용, ‘못’ 부정문의 성립 가능성²⁵⁾ 등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²⁶⁾

24) 이 밖에 민현식(1999 : 142)에서도 “종래 ‘-아 있다’는 대개 상태 의존용언으로 보고 있는데 이 용어는 너무 막연하여 예컨대 진행도 상태라 볼 수 있기에 상태 아닌 것이 없으므로 …”(민현식 1999:142,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라고 하여 진행도 상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30) 형용사 ‘있다2’의 활용

- ㄱ.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 너는 지금 책을 읽고 있구나.
-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고 한다.
- ㄴ.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지 않다.
- 그도 지금 책을 읽고 있기는 하다.
- ㄷ. 그는 아직 책을 못 읽고 있다.
- *그는 아직 책을 읽고 있지 못하다.

(31) 동사 ‘있다2’의 활용

- ㄱ. (강의가 없을 때)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다.
- (강의가 없을 때) 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는다.
- (강의가 없을 때) 그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다고 한다.
- ㄴ. (강의가 없어도)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고 있지는 않는다.
- (강의가 없을 때)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기도 한다.
- ㄷ. (강의가 없어도)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만 못 읽고 있다.
- (강의가 없어도)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고 있지는 못한다.

그리고 동사로서의 ‘있다2’에는 (32)와 같이 ‘-겠-, -을게, -을래, -으마, -으려고’ 등 동사에 결합하는 어미들을 결합하여 의지, 약속, 의도 등을 표현할 수도 있고, ‘-어려, -자’ 등의 어미를 결합하여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도 있다.

- (32) ㄱ. 밥을 먹고 {있겠다, 있을게, 있을래, 있으마, 있으려고 한다}.
- ㄴ. 밥을 먹고 {있어라, 있자}.

한편 ‘있다2’는 (33)과 같이 ‘있다1’이 갖는 ‘행위의 결과 상태’와 관련된

25) (30ㄷ)에서 짧은 부정문이 성립하는 것은 ‘있다1’과 동일하다.

26) 동사 ‘있다2’의 쓰임은 ‘아무 말 없이 상대의 말을 그냥 듣고만 있다(충청일보, 2013. 3.19), 네티즌은 “집안에서는 편하게 읽고 있는다” ...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충청일보, 2012.12.7), 금촌시장 상인들도 외부의 도움만 바라고 있지는 않는다(동아일보, 2013.6.25), 자기도 꿈을 갖고 살고 있지만 백연이나 아버지처럼 꿈을 살고 있지는 못한다(경향신문, 1964.11.9)’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미 기능을 갖는 때도 있다. 이는 본용언이 ‘감다, 끼다, 타다’ 등 비교적 짧은 순간에 끝나는 행위를 나타내며, 또 이들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재귀적(reflexive)이기²⁷⁾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눈을 감거나, 반지를 끼거나, 차를 타는’ 행위가 시작해서 끝나기까지의 아주 짧은 순간도 진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33)도 ‘진행’과 관련된 뜻을 나타낼 수도 있다.²⁸⁾

- (33) ㄱ. 눈을 감고 {있다, 있어라}.
 ㄴ. 반지를 끼고 {있다, 있어라}.
 ㄷ. 차를 타고 {있다, 있어라}.

(33)과 같이 ‘행위의 결과 상태’와 관련된 의미 기능을 가짐으로써 ‘있다2’는 결과적으로 ‘있다1’의 빈자리를 일부 대신하는 셈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현대국어에서 ‘있다1’은 타동사에는 결합하지 못하는 제약을 갖는다.²⁹⁾ 따라서 이들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결과 상태’는 ‘있다1’로는 표현할 수 없다(*감아 있다, *끼어 있다, (버스를) *타 있다).

4. 맺음말

본용언이든 보조용언이든 ‘있다’를 어느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것으로

27) 이들 동사의 재귀적 속성에 대해서는 이남순(1981/1998), 고영근(2004), 김윤신(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밖에 ‘알다, 잇다’와 같은 심리달성동사(김윤신 2004)들에 결합할 때에도 ‘있다2’는 ‘행위의 결과 상태’와 관련된 의미 기능을 갖는다.

28) ‘옷을 입고 {있다, 있어라}.’와 같은 예에서 이와 같은 중의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29) ‘있다1’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시기에는 타동사에도 결합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결합하지 못한다. ‘있다1’의 결합과 그 제약에 대해서는 임흥빈(1975), 정태구(1994), 한동완(2000), 정언학(2002 ㄱ, ㄴ), 고영근(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불 때에는 활용형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있다’는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라고 본다. 그리고 보조용언 ‘있다’의 품사 설정에서 제기되는, 본용언 ‘있다’와는 또 다른 어려움은 활용 양상의 차이가 의미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 있다(있다1)’는 형용사로, ‘-고 있다(있다2)’는 동사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있다’는 본용언이든, 보조용언 ‘있다1’이든, ‘있다2’든 모두 ‘상태’의 뜻을 갖는 형용사로, 그리고 ‘행위’의 뜻을 갖는 동사로 함께 쓰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그 뜻이 본용언 ‘있다’는 ‘존재’와, ‘있다1’은 ‘행위의 결과 상태’와, ‘있다2’는 ‘진행’(그리고 일부 타동사의 경우 ‘행위의 결과’)과 관련된 것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를 요약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4) ‘있다’의 의미 특성과 품사

ㄱ. 본용언 ‘있다’

①형용사 : 존재(상태)

②동사 : 존재(행위)

ㄴ. 보조용언 ‘(-어) 있다1’

①형용사 : 행위의 결과 상태의 지속(상태)

②동사 : 행위의 결과 상태의 지속(행위)

ㄷ. 보조용언 ‘(-고) 있다2’

<진행>

①형용사 : 진행(상태)

②동사 : 진행(행위)

<행위의 결과 상태>

①형용사 : 행위의 결과 상태의 지속(상태)

②동사 : 행위의 결과 상태의 지속(행위)

한편 본용언 ‘있다’, 보조용언 ‘있다1’, ‘있다2’는 모두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이므로 평서형, 감탄형, 간접인용문에서의 활용, ‘있다’를 후행

할 때 보조용언 ‘않다, 하다’의 활용, ‘못’ 부정문의 성립 가능성 등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동사로서의 ‘있다’에는 ‘-겠-, -을게, -을래, -으마, -으려고’ 등 동사에 결합하는 어미들을 결합하여 의지, 약속, 의도 등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 ‘-어라, -자’ 등의 어미를 결합하여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고석주(1996), “‘있다’ 구문에 대한 연구”, 『국어 문법의 탐구』(남기심 편, 태학사) 3, 99-127.
- 고영근(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근수(1947), 『중학 국문법책』, 문교당 출판부. 김민수·하동호·고영근(1979), 『역대한국문법대계』 1-71 재록, 탑출판사.
- 김민수 외 3인 편(1992),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말본론)』, 탑출판사.
- 김승곤(2009), 『21세기 우리말본 연구』, 도서출판 경진.
- 김윤신(2004),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사건함수 ‘-고 있다’의 기능”, 『형태론』 6-1, 43-65쪽.
- 김정남(1998/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도서출판 역락.
- 남기심·고영근(1985/199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도원영(2002), “국어 형용성 동사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도서출판 역락.
- 박승빈(1931), 『조선어학강의요지』, 경성:보성전문학교. 김민수·하동호·고영근(1979), 『역대한국문법대계』 1-48 재록, 탑출판사.
- 박승빈(1935), 『조선어학』, 경성:조선어학연구회, 김민수·하동호·고영근(1985), 『역대한국문법대계』 1-50 재록, 탑출판사.
- 박양규(1975), “소유와 소재”, 『국어학』 3, 국어학회, 93-117쪽.
- 박지홍(1981), 『우리현대말본』, 문성출판사.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쪽.
- 배주채(2000), “‘있다’와 ‘계시다’의 품사에 대한 사전 기술”, 『성심어문논집』 22, 성심어문학회, 223-246쪽.
- 서정수(1994/1996), 『국어문법(수정 증보판)』, 뿌리깊은나무.
- 성광수(1976), “존재(동)사 「있다」에 대한 재고”, 『한국어문논총(우촌강북수박사회갑 기념논문집)』(형성출판사), 109-123쪽.
- 손세모돌(1994/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신선경(1997/2002),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태학사.
- 심의린(1935), 『중등학교 조선어문법』, 경성: 조선어연구회. 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1-59 재록, 탑출판사.
- 양정석(1995),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 이론』, 박이정.
- 양정석(2012), “‘느’ 분석론과 ‘있다’, ‘없다’의 문제”, 『한글』 296, 한글학회, 81-122쪽.
-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유현경(2006), “형용사”, 『왜 다시 품사론인가』(남기심 외 12인, 커뮤니케이션북스), 147-196쪽.
- 이남순(1981), “현대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6. 이남순(1998), 『시제 · 상 · 서법』, 월인, 7-102쪽 재록.
- 이상억(1970/1999), 『국어의 사동 · 피동 구문 연구』, 집문당.
-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승녕(1956-), 『중등국어문법』, 을유문화사. 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1985), 『역대 한국문법대계』 1-89 재록, 탑출판사.
- 이승녕(1956-), 『고등국어문법』, 을유문화사. 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1985), 『역대 한국문법대계』 1-90 재록, 탑출판사.
- 이승녕(1968), 『(인문계 고등학교) 문법』, 을유문화사.
- 이완웅(1929), 『중등학교 조선어문법』, 경성: 조선어연구회. 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1986), 『역대한국문법대계』 1-40 재록, 탑출판사.
- 이익섭(2005), 『한국어문법』, 서울대 출판부.
- 이인모(1968), 『(인문계 고등학교)새문법』, 영문사.
- 이주행(2000/2001), 『한국어 문법의 이해(개정판)』, 월인.
- 이희승(1950),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이희승(1956), “존재사 「있다」에 대하여—그 형태요소로서의 발전에 대한 고찰—”, 『논문집』(서울대) 3, 17-47쪽.
- 임병민(2010), “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 논문.
- 임홍빈(1975), “부정법 {어}와 상태진술의 {고}”, 『논문집』 8, 국민대, 13-36쪽.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1—문장 범주와 굴절』, 태학사, 593-

621쪽 재록.

정언학(2002-), “중세국어 보조용언 연구—‘V-어 V’, ‘V-고 V’ 구성을 대상으로”,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정언학(2002-), “‘-고 있다’ 구성의 문법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 『진단학보』 94,
진단학회, 167-203쪽.

정인승(1959), “우리말의 씨가름(품사 분류)에 대하여”, 『한글』 125, 한글학회, 32-43쪽.

정인승(1968), 『(인문계 고등학교)표준문법』, 계몽사.

정태구(1994), “‘-어 있다’의 의미와 논항구조”, 『국어학』 24, 국어학회, 203-230쪽.

최현배(1937/1961), 『우리말본(세번째 고침)』, 정음문화사.

최호철(1993), “현대 국어 서술어의 의미 연구—의소 설정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
사학위 논문.

한글학회 편(1991),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한동완(2000), “‘-어 있-’ 구성의 결합제약에 대하여”, 『형태론』 2-2, 257-288쪽.

허 웅(1995/2000),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고친판)』, 샘 문화사.

황화상(2011/2013), 『현대국어 형태론(개정판)』, 지식과 교양.

〈ABSTRACT〉

A Semantic Property, Parts of Speech, and Conjugation of 'issda'

Hwang Hwa-sang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the semantic property and parts of speech of a verb 'issda' based on the conjugational property of it. A verb 'issda' conjugates not only like a state verb, but also like an action verb. This is because its meaning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ntext. A main verb 'issda' is related to the meaning 'the existence'. A main verb 'issda' as a state verb means 'the existence as a state', but a main verb 'issda' as an action verb means 'the existence as an act'. An auxiliary verb '(-eo) issda' is related to the meaning 'the resultant state of an act'. An auxiliary verb '(-eo) issda' as a state verb means 'the state that the resultant state of an act is maintained', but an auxiliary verb '(-eo) issda' as an action verb means 'the act to maintain the resultant state of an act'. And the meaning of an auxiliary verb '(-go) issda' is related to the meaning 'the progress'. An auxiliary verb '(-go) issda' as a state verb means 'the progress as a state', but an auxiliary verb '(-go) issda' as an action verb means 'the progress as an act'.

- 주제어 : '있다', 용언, 본용언, 보조용언, 품사, 동사, 형용사, 존재, 행위의 결과 상태, 진행
'issda', verb, main verb, auxiliary verb, parts of speech, action verb, state verb, existence, resultant state of an act, progress

황 화 상

소 속 :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hshwang@sogang.ac.kr

논문 접수 : 2013. 10. 15.

논문 심사 : 2013. 11. 10.

게재 결정 : 2013. 11. 30.
